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9월 27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기술시장과 윤성혁 과장(2110-5397), 이현준 사무관(2110-5695)
산업기반팀장 이재식 팀장(2110-5510), 이남용 사무관(2110-5661)

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3차 공청회 개최

- 기술사업화' 및 글로벌 기술협력 분야 -

* '기술사업화' 분과는 제5차 기술이전·사업화촉진계획 공청회를 겸함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 「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*('14~'18년)」에 대해 관련 **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책분야별 공청회 (4회) 및 총괄 공청회 (1회)**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밝힘

* '산업기술혁신촉진법'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·추진해야하는 법정계획으로, 금번 6차 계획은 5월 30일 Kick-off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

<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 일정(안) >

▪ 기술인프라 및 지역기술기반	9.10(화) 10:00~12:00, 기술센터
▪ 기술인재양성 및 기술문화확산	9.24(화) 10:00~12:00, 기술센터
▪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기술협력	9.27(금) 10:00~12:00, 기술센터
▪ 기술개발과 평가관리체계	10월초
▪ 8개 분과 총괄 공청회	10월중순

○ 그 동안 산업부는 **8개 분과별*로**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**'산업기술혁신계획 TF'를 구성**하여, 현황 및 당면과제, 주요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**분야별 계획 초안을 마련한 바 있음**

* ①기술개발, ②글로벌기술협력, ③기술사업화, ④기술인프라, ⑤기술인재양성, ⑥기술문화확산, ⑦지역기술기반, ⑧평가관리체계 등 구성

□ **세번째 공청회는 '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기술협력' 분야로** '13. 9. 27 (金) 10시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되어, **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촉진방안***과 **주도적 글로벌 기술협력 방안**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

* 금번 기술사업화 촉진방안은 "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"에 의한 **제5차 「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」(3년 중기계획)**에도 **반영 예정**

□ 우선, **기술사업화 분과** (위원장: ㈜날리지웍스 이철원)에서는 **비즈니스 친화적인 기술 공급을 확대, 기술 평가·금융 활성화, 기술사업화 기반 고도화** 등 **3개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안**함

<3대 전략 목표, 8개 정책 과제>

1. 비즈니스 친화형 기술 공급	2.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 활성화	3. 기술사업화 기반 고도화
① 선BM 후 R&D ②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 사업화 촉진 ③ 「R&D 재발견 프로젝트」 추진	④ 기술평가와 기술금융 연계 ⑤ 초기사업화 펀드 확대 ⑥ R&D 수행기업-기술금융 연계	⑦ 기술이전·사업화 지수 도입 ⑧ 기술사업화기금 조성 ⑨ 공공연 사업화 조직 지원 ⑩ NTB의 수요자 중심 개편

○ 먼저, **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반영**할 수 있도록 R&D 기획과정을 개선하고, **휴면특허의 사업화**를 위해 기술발굴·기획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

○ 다음으로, **기술평가 전문가 양성, 기술평가 신뢰성** 제고, **초기사업화 펀드 확대** 등 **기술금융활성화 방안**을 제시하였음

○ 마지막으로, 대학·연구소의 **기술이전·사업화 성과와 역량**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**지수 개발**과 안정적인 사업화 예산 확보를 위한 (가칭) **기술사업화 기금 도입 방안**도 제시하였음

□ 한편, 글로벌기술협력분과(위원장 : 이종일 뉴욕주립대학교 교수)에서는 향후 5년간 능동형 글로벌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,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혁신을 견인할 **「글로벌기술협력 리더십 확보를 위한 Global+ 전략」을 제안**함

<3대 전략 목표, 10개 정책 과제>

1. 전략적R&D협력을 통한 글로벌기술리더십 확보	2.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	3. 산업과 통상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통상 시대 선도
① 정부간 매칭펀딩형 프로그램 확대 ② 다국간 이슈 공동 R&D 프로젝트 지원 ③ 글로벌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대	④ 중소기업 국제기술협력 전주기 지원 ⑤ 해외R&D인맥활용 R&D 컨설팅 등 지원 ⑥ 국제기술협력 지원체계 차별화	⑦ 글로벌 기술 시장 개방 지도 구축 ⑧ 산업기술인력의 글로벌 교류 확대 ⑨ FTA 활용한 신흥국 기술협력 강화 ⑩ 기술무역장벽 대응 프로세스 구축

○ 먼저 **높아진 한국의 기술 위상을 기반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협력 전략 및 협력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**

- 국가간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양국간 매칭 펀딩형 협력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

* 기존에는 선진기술습득 등을 위해 국내 사업비를 해외기관에 지원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으나, 양국간 매칭 펀딩을 통한 상호 대등한 협력 모델 확대

- EU FP* 산업계 참여 확대 지원, 유로스타2** 가입 추진 등 해외 R&D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함

* EU FP : EU 회원국 및 준회원국 등 40여개국이 공동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공동R&D 프로그램

** 유로스타 2: 유레카와 EC가 공동기획·운영하는 중소기업 혁신형 R&D 프로그램

○ 더불어 **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주기적 일괄 지원 체계 정립 및 글로벌 기술협력 전담인력 양성 방안을** 제시함

-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협력 참여를 위한 정보 수집, 파트너발굴, 국제공동R&D 수행, 성과확산에 이르는 일괄 지원체제를 논의하고,

- 해외 한인 공학자 등 해외 R&D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성공적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

○ 마지막으로, FTA등 통상의 이슈 및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**기술협력과 통상의 시너지 제고** 전략을 제안함

- 기 타결 체약국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 국가 및 분야, 제반 조건을 분석한 '글로벌 기술 시장 개방 지도(가칭)'를 구축하고,

* '13년 8월 현재 한국은 9건의 FTA 발효중이며, 체약국 수는 47개 국가에 달함

- 신흥국과 FTA에 장기적 기술협력 로드맵에 기반한 ODA 연계 사업 포함을 제안함

<붙임1>

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기술협력 공청회(안)

□ 행사 개요

○ 일시 및 장소 : 9. 27(금) 10:00~12:00,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

○ 주최 및 주관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산업기술진흥원

○ 참 석 자 : 산학연 관계자 총 150여명

○ 상세 일정

시 간	주요 내용
10:00~10:10	산업기반실장 인사말씀
10:10~10:30	발표1 : 글로벌기술협력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Global+ 전략 - 이종일 교수 (한국뉴욕주립대학교)
10:30~10:50	발표2 : 스마트 기술사업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산업생태계 활성화 *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공청회 연계 - 이철원 대표 ((주)날리지웍스)
10:50~11:40	패널토론 : [좌장] 심영택 교수(서울대학교) - 홍유수 소장(글로벌혁신발전연구소) - 김경환 교수(성균관대학교) - 윤명현 본부장(전자부품연구원) - 서주원 대표((주)이디리서치) - 이주환 부사장((주)지엠티) - 임원기 기자(한국경제신문)
11:40~12:00	질의 응답

<붙임2>

기술사업화 분과 당면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

1. 추진 배경

□ **경제성장률** 순위가 세계 **하위권**으로 **추락** ('10년 57위 → '12년 117위) 하는 등 **주력 전통산업**(화학·조선·자동차 등) **중심 성장의 한계**

○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, 영업이익율 등 **핵심지표 감소 추세**

*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수: ('09년) 73개 → ('10년) 71개 → ('11년) 61개
* 영업이익률(1/4분기) : [기계] ('12) 7.8% → ('13) 3.2% [자동차] ('12) 8.5% → ('13) 6.1%

○ **국가경쟁력 평가** (WEF, '13년) 결과 **한국**은 **25위**로 전년 대비 **6단계 하락***, 기술이전·벤처창업 등 **기술사업화 관련 지표 부진**

* WEF(World Economic Forum, 스위스) 순위변동 : ('07년) 11위 → ('13년) 25위

□ **R&D**를 통해 개발된 **기술**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때 **일자리 창출**이 가능하므로, **기술이전·사업화**는 **창조경제 실현의 핵심과제**

2. 그간 성과와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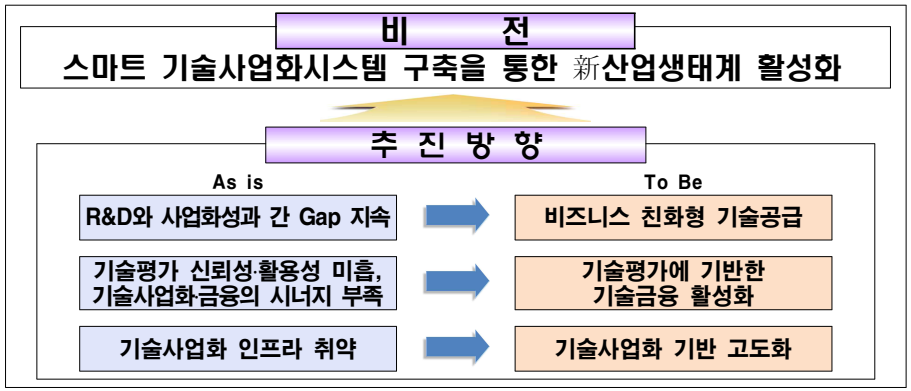
□ 기촉법 제정('00년)이후 4차례 기술이전•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으로 기술사업화 기반을 구축하여, **기술이전 수익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,**

* 공공연 기술이전 수익 3.4배 증가↑, 기술이전 건수 6.2배 증가

○ **기술 이전 - 사업화 성과**는 아직까지도 **선진국 대비 미흡**

* 정부 지원액 대비 기술료 수입이 **미국의 1/3 수준**, 휴면특허 비율은 **미국의 2배**, 공공기관당 기술창업 건수는 **미국의 1/5 이하**

3. 비전과 추진방향



4. 세부 정책과제

가. 비즈니스 친화형 기술 공급

① '선BM 후 R&D' 기술사업화 지원 제도의 확대

○ 先 '사업화 기획(BM 확보)' → 後 '필요기술 확보' 사업 확대하여, 기존 공급자적 중심의 사업을 수요자 주도형으로 전환

②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 사업화 촉진

○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&BD 트랙을 신설하고, 사업화 가능한 핵심·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&D 프로세스 개선

③ R&D 재발견 프로젝트 추진

○ 잠자고 있는 정부 R&D 결과물 (특허)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'R&D 재발견'의 기반 마련

나.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 활성화

① 기술평가와 기술금융 연계

○ 민간 금융기관에 기술평가전문가를 양성·공급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, 평가 표준체계 정비 및 모델 추가개발 등을 통하여 평가신뢰성 및 시장수용성 제고

② 초기사업화 펀드 확대

○ 기술사업화 全 주기의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펀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기술사업화 펀드 출시 추진

③ R&D 수행기업-기술금융 연계

○ 정부 R&D 성공기업과 투/융자 금융권을 연결시키는 기업 - 투자자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소통의 장 마련

다. 기술사업화 기반 고도화

① 공공연 사업화 조직지원

○ 단절적이고 인건비 지원 위주의 TLO, RTTC, 기술지주회사 사업을 기술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협업형 사업으로 개편

② NTB의 수요자 중심 개편

○ 기술이전 사업화 종합정보망 (NTB) 등록기술 DB의 품질을 제고하고, 개방·공유하여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창출 촉진

<붙임3>

글로벌기술협력 당면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

1. 추진배경

대내외 환경변화

□ (R&D 패러다임) 글로벌 저성장 추세, 에너지 등 전지구적 이슈, 기술융복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탈추격형(창조형)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

□ (중소기업의 혁신역량)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R&D 협력을 통한 혁신 역량 및 전략적 성과 창출 제고 필요

□ (시장개방 및 통합) FTA확산에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 강화 필요

사업추진현황

□ '90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어, '07년 산업부 내 담당과 신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

*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예산 추이('90~'13) : 1억('90)→30억('95)→157억('04)→170억('07)→390억('09)→512억('11)→571억('13)

□ 국제공동R&D와 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국가별, 산업별 우수 R&D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혁신의 밑거름 마련

* 국제공동R&D를 통해 약 700여개의 해외기관과의 공동 연구 파트너십 구축 ('08~'12년 국제공동R&D지원 과제 기준)

□ 그러나 단기적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실질적 성과창출이 미약하고, 국내 산학연의 단발적 협력 수요에 의존한 보조적 지원에 치중

* 수요 지원형(총 예산의 91.2%) 중심의 사업은 R&D 과제간 파편화 및 규모의 경제 미확보(평균지원금: 3억원 내외)로 기술적 파급효과 미흡

□ 국제 R&D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제반 국제화 여건을 재점검하고, 높아진 한국의 기술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시급

2. 추진방향

□ (국제기술협력의 리더십 확보) 기 구축된 국제협력기반을 바탕으로 능동형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범위 및 목적 재조명

□ (글로벌혁신 생태계 조성) 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전주기 포괄 및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

□ (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) 기술무역 수지 개선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국제기술협력에서 통상의 이슈 및 효과를 적극 활용

3. 주요 추진과제

1 주도적 기술협력 전략 및 협력 모델 공고화

○ 국가간 기술협력 기획 플랫폼 구축 및 매칭 펀딩형 협력 강화

○ 해외 프로그램(EU FP, 유로스타 등)의 주도적 활용 전략 수립

2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일괄 지원 강화

○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일괄 지원 프로세스 구축

○ 중소기업 국제공동 R&D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지원

3 해외 R&D 인맥 네트워크 활용 기업 지원 강화

○ 한인 공학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국제기술협력의 수요 연계

○ 국내기업과의 R&D기획을 위한 '재외한인공학자 활용 지원과제' 확대

○ 국내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컨설팅 지원

4 글로벌 기술 시장 개방 지도 구축

○ 기업의 유망 진출국, 산업 분야 등을 포함한 기술 시장 개방 지도 작성

○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·오프라인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

5 FTA를 활용한 신흥국과의 기술 협력 모델 고도화

○ 신흥국가와의 FTA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장기적/단계적 협력 관계 구축

○ 신흥국와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ODA와 연계 검토